



유기농식품의 무한 성장잠재력

방콕사무소

GTS부과에도 끄떡없는 경제성장률

- 인도 정부는 2017년 국민 건강을 위해 고과당 간식 종류와 탄산음료 등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해당 제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,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부가가치세를 통합한 GST(통합간접세)를 부과하기 시작했다.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도 GDP는 6.5% 성장했다.
- 2019년 인도의 GDP는 7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은 유기농 식품, 제약 그리고 FMCG¹⁾와 같은 산업 분야의 활성화 촉진으로 이어지리라 예상된다.

전자상거래가 유기농식품 활성화 도와

- TechSci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, 세계 유기농식품(Organic Food) 시장은 2016년 1,100억 달러(약 123조 3,700억 원) 수준에서 연평균 16% 이상 성장해 2022년에는 2,630억 달러(약 294조 9,300억 원)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2013 ~ 2017년까지 인도의 유기농 식품시장 규모는 두

자리수의 성장률을 지켜왔으며, 2019년에도 성장세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인도 유기농식품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시장 여건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덕에 유통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중소도시 소비자들의 유기농식품 구매가 한층 자유롭고 편리해졌다.
- 둘째, 인터넷접속 환경이 무료 또는 저비용 체제로 개선되면서 더 많은 인도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에 대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.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정보 역시 빠르게 확산되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. 일례로 인도의 라면시장 점유율 50%에 육박하던 ‘네슬레 메기라면 사태’²⁾ 이후 인도의 소비자, 정부 모두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.
- 마지막으로 유기농 식품업계에 새롭게 뛰어드는 많은 업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기농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.

1) FMCG(세제, 면도용품, 치약, 칫솔, 화장품, 비누 등 소비 속도가 빠른 비 내구성 소비재)

2) 메기라면 사태 : 1980년대부터 판매되어 오던 인도의 국민라면 ‘Maggi라면’에 대해, 2015년 6월 인도 식품 검역국(FSSAI)은 납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보고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.



인도 유기농 제품 로고

인도의 유기농인증부터 우선 확보

- 세계 인구 2위인 인도의 유기농식품시장은 이제 겨우 초기단계라,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. 무한 발전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, 한국의 유기농식품업체는 발 빠르게 유기농인증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. 인도의 유기농 인증프로그램은 <National Programme for Organic Production(NPOP)>, <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for India(PGS-India)> 그리고 인도 식품 당국이 지정하는 표준 및 기준 등이 있다.
- 인도인구의 40%는 채식주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채식(Veg, 베지), 비채식(Non-Veg, 논-베지)마크 부착(필수 포장 표기)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. 최근에는 기능성 강조에 대한 포장 표기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도 매우 민감하게 정부정책이 가동되고 있다.
- 이에 우리 업계에서는 제품의 기본정보에 대한 포장표기 영문인쇄, 베지마크 인쇄 등 정식통관을 위한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겠지만 인도의 고소득층, 채식주의의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유기농식품 시장 진출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.

유기농식품 산업 가속화 전망 요인

①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

인도 소비자들의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온라인유통시장이 더욱 확장되면서 소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. 또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및 비료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될 것이고, 다양한 유기농 재배법이 동원된 유기농식품 출시 또한 증가할 것이다. 특히 전체 인구의 40%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채식주의자들의 유기농식품 수요가 꾸준하고 이들의 전체소비지출 중 신선농산물 구매에 사용하는 비중이 27%를 넘는 지출 성향을 고려해 보면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② 중산층의 높아지는 구매력

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, 2025년에는 인도 중산층의 구매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.

③ 인도 유기농식품의 수출 증가

인도 농림축산식품 수출개발국(APEDA)에 따르면, 인도의 유기농식품 수출은 2016~2017년 3억7천만 달러(약 4,150억 6,600만 원)에서 2017~2018년 5억1천만 달러(약 5,721억 6,900만 원)로 인도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④ 신선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물류시스템의 개선

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에는 인도의 물류시스템이 턱없이 열악한 실정이다. 단기간에 유통시스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유기농 농산물·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.